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대



피안에 이르는 길

〈잡아함경〉제26권 771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투원에 계시실 때 어떤 사문이 피안과 피안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부처님은 불교도들에게 8정도 말려져 있는 어둠 가리의 바란 길은 피안이며, 8 정도와 배치되는 샛별 길은 피안이 아니며, 피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실밭이라고 있다. 그런 뒤에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한다.

“사람으로서/ 피안에 이를 수 있는 이는 드물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차안(此岸)에서 배회하고 있고노라/ 이 바란 가르침과 계율/ 잘 믿고 따르면/ 그런 사람/ 저 건너기 어려운 생사의 바다 건너/ 피안에 이를 수 있으리”

이상에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가 피안이며, 피안으로 이끌어 주는 길이라 설파하며, 동시에 바란 가르침과 계율을 해석하고 있다. 기실 4성계의 핵심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란 견해(정견란 4성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유하고, 번뇌가 없는 사유를 따라 깨닫는 것을 말한다. 바란 사유(정사유란) 출가자에게 어울리

8정도는 3학과 삼위일체

구체적 실천 따라야 자아완성

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 두려움을 떠난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애쓰는 것이며, 세속적으로는 욕망과 분노와 폭력을 여린 사유를 지칭한다. 정견과 정사유와 공통점은 견해와 사유의 탐방에 고-무상-무아의 사상이 전체 되어 있다.

바란 말장어이란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욕설, 꾸미는 말은 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생활을 통해 타인에게 믿음과 사랑, 평화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사회의식이 전제돼 있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청진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 필요한 것이다. 바란 행위(정업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않는 것을 빼앗지 않으며, 청정지 못한 행위(음행)를 떠나는 것이다. 바란 생활정명이란 세속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출가자 입장에서 버리지 않은 생활에 대한 번뇌를 없애고, 즐기거나 집착하지 않되 때를 어기지 않고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바란 노력(정진)이란 이미 존재하는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은 일으키도록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바란 인식(정명)이란 세상의 윤행과 근심을 버

리고, 사물에 대해 거담 생각하고, 기억하여 생각이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는 것이다. 4념처관에 의거, 분과 감수 작용과 마음과 법에 대해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바란 선정(정정)이란 마음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 즉 4성제를 있는 그대로 사유하면서 산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거두어들이고, 고요하며, 심미요한 마음인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공, 무상(無相), 무원(無願)의 마음이집이 갖추어져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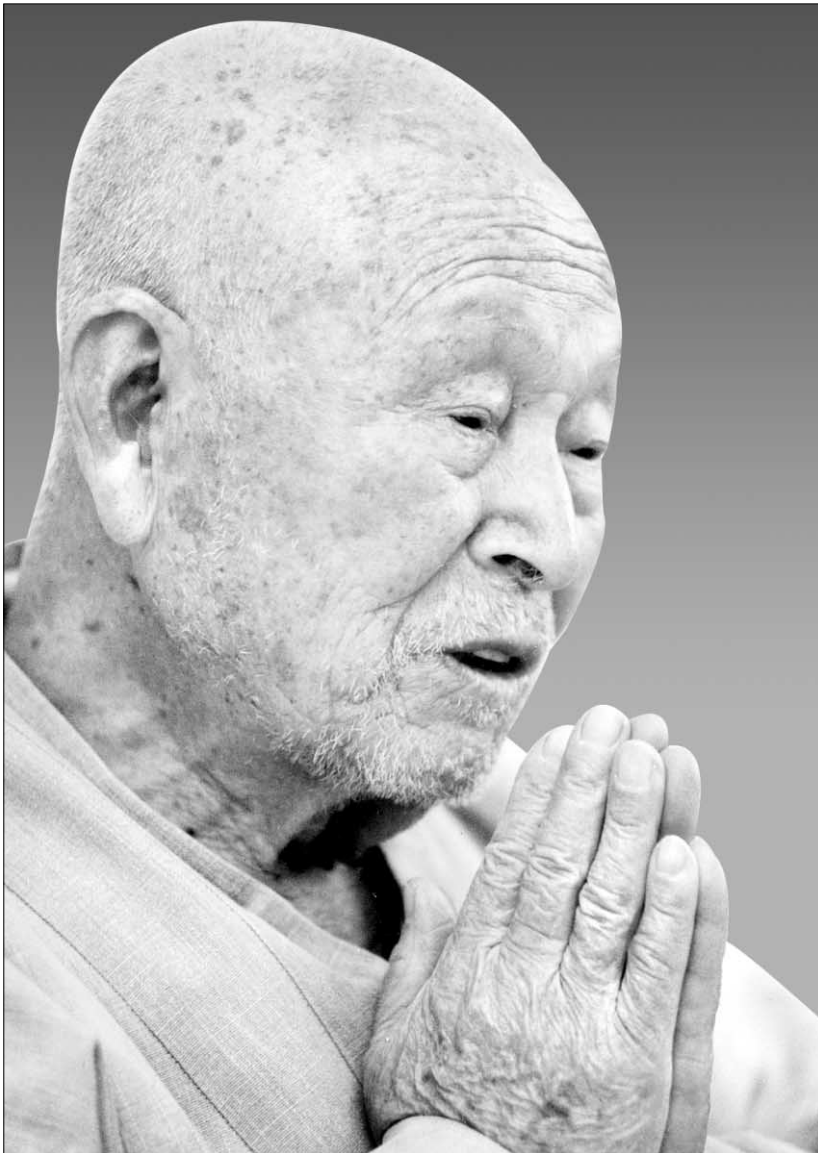
이상에서 8정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이다. 이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견은 나머지 일곱 가지 길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정 역시 나머지 일곱 가지 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8정도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석하고, 그것을 3과이라 부른다. 즉 정견+정사유=지혜(慧), 정어+정업+정명+정정진=계율(戒), 정념+정정=선정(禪)이다. 이상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정사유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욕망, 성냄, 폭력(=이리석음)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율에도 속한다. 즉 정사유+정어+정업=선정계(十善戒)가 된다. 정사유는 선세계에서 바른 의입(應美)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념과 정정은 4념처관을 통해 고-무상-무아

8정도는 3학과 삼위일체

구체적 실천 따라야 자아완성

를 관철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정견 내지 정사유와 상통한다. 선정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올바른 지혜를 기반으로 올바른 선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가본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계정해 3과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정도는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동시에 인식과 실천의 주체는 다름 아닌 개개인 자신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유의지의 확대에 있다는 점을 말한다. 정명, 정정진 등이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8정도가 피안에 이르는 길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되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진정 풀랐던가 잘못 알았던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식 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초현실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기보다 구체적 실천을 통해 자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8정도의 정신이다. <본지 삼림는살워현· 불교학 박사>



◇석주스님은 하심하는 사람에게는 만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오니 자기를 낮추고 비유는 일에 노력하려고 강조하셨다.

상좌 승운스님이 본 석주 큰스님

어느 날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초라한 행색의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교장선생님께 정을 한 뒤 바깥에서 수백권의 <부모은중경>을 꺼내 어린학들에게 나눠줬다. 스님은 다른 학교에서도 그와 같이 했다. 어느 어둠이 내리고 스님은 하룻밤 할 곳을 찾았다. 마침 사람이 있었다. 주지스님께 방사를 부탁했지만 초면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아무 말 않고 다른 절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분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석주스님이였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를 내주지 않았던 주지스님이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을 빌었다. 석주스님은 “참회했으니 됐다” 말하며, “허허” 웃으셨다. 스님을 20여년간 모신 아산 보림사 주지 승운스님은 당시입원을 얘기하며, 석주스님은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꼭 어린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관용자도 개인일이라며 사용자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8정도의 정신이다. <본지 삼림는살워현· 불교학 박사>

석주스님은 또 상좌들이 생활일을 차려드림라

“하심 하면 萬福 저절로”



지상 백고좌

〈법명경〉에 보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어떤 일은 모두 자기에게 돌려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좋은 자리는 남에게 다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제일 나쁜 자리에 앉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모두 복을 받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이 되어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我山崩處(인아산붕처) 無爲道自成(무위도자성) 凡有下心者(범유하심자) 萬福自歸汝(만복자귀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아산(我山)이 무너지는 곳에서 무위(無爲)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

새해에는 배운것 하나라도 실천을

참회는 수행을 완성시키는 지름길

릇 하심(下心)이 있는 이에게 만복이 스스로 귀의한다’는 뜻이요.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상이 무너지는 곳에 힘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일어나고, 무릇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 가지 복이 모두 날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참선하고 열불하는 중에도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됩니다.

연제든지 남을 배려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 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

닙니다. 그저 한마디라도 실행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시끄러워 집니다.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常不轉) 보살은 이를 그대로 항상 남을 기쁨게 보지 않고 존경해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보살은 길을 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잘차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에 때때로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수기를 주는

나’는 말로 핀잔을 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때렸습다. 그러던 상불경보살은 말없이 물러선뒤 그분들을 향해 합장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맞아가면서요 때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며 예배를 했습다. 공부하는 사람은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자신도 존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길음이라도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월(水月)과 같이 마음을 열고, 속을 비워 놓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심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한 마음은 꼭 성불하게 됩니다. 우리 본 마음은 다 부처님입니다. 보이는 우리들의 주체고 주인공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배담은 필경에 소멸되어서 가는 티끌이 되거니와 항상 깨끗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필경에 성불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생이 괴로운 것은 일시적인 모두가 번뇌망상에 가려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팔만사천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란 번뇌란(煩惱)으로서 “마음을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때 같은 것이요. 또 손 짝자 티끌 진자 ‘번뇌’, ‘객진번뇌(客塵煩惱)’는 이렇듯엔 우리의 가성이나 허속집 같

습니다. 그해 한마디라도 실행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시끄러워 집니다.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常不轉) 보살은 이를 그대로 항상 남을 기쁨게 보지 않고 존경해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보살은 길을 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잘차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에 때때로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교와 불사를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글씨를 써 주시는 석주스님.

은데 며칠 목다가 떠나는 손님 같은 것 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갑자기 걸은 구름이 불려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이 치는 현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갑자기 해가 뜨고 맑게 개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 번뇌란 뿔이 내린 번 마음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 정초기도에 들어가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일심으로 지극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필경에는 부처님 되는데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세속의 행복

이나 명예추구, 부자 되는데 두지 마세요. 생사를 초월해서 대 지혜와 대 해탈을 통한 대 자유를 얻는데 목표를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치기 전에는 영원히 고통스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은 지니고 있는 자상부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향상시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불자가 됩니다. 밭을 갈을 때마다 깨닫는 바가 있어서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향상이 없으면 절에 나오나 마나 하지요.

매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참회하십시오. 세세생생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들을 조서서 되새기며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수행과의 처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내 입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여 줍니다. 참회야말로 민인을 편안케 해주고 수행을 완성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과(因果)는 엄정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스스로 있고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묘한산 보현사 산내암자인 상원사에 올라가면 선분이 있습니다. 내기 젊은 시절 한 절을 지었는데, 그곳에 금강산에서 온 해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어요. 어느 날 스님이 부엌에서 야채에 불을 때는데 깜박 졸았어요. 꿈에 열두어 살 된 동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스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시방할 테니 이름을 지어주시고, 열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네 이름을 ‘계행’이라고 지어주겠다. 하루에 300번 관음기도를 해라’고 말했어요. 계행동자가 관음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매일 300번씩하더니, 어느날 부터는 400번, 500번, 2년이 넘어가자 1000번을 하는 겁니다.

해원스님이 어느 날 또 부엌에서 불을 때다가 졸았는데 꿈에 동자가 나타나요. 동자가 ‘스님께서 열불법을 가르쳐주어 열심히 정진하다보니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다.’해요. 스님이 황급히 꿈에서 깨어나 꿈중을 보니 이미 하나 다했어요. 거기에는 ‘경복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다. 곧 경복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순종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인이든 독립운동가였던 황현(黃奭)이 기술한 한말사(韓末秘史)인 <매연야록(梅峯野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공덕은 이와 같이 큼니다. 한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발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공덕 큰 줄 알고

하마음, 지극정성 발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관하여 듣고, 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며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새 지 못하고 갑자기 해가 뜨고 맑게 개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 번뇌란 뿔이 내린 번 마음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 정초기도에 들어가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해서’

다 많이 열기 위해 노력할 뿐이로다. 나 오직 만족해 하면서 감사함을 사노라.

정리=김원우 기자 www@mnews.com
사진 =고영배 기자 yjg01@buddhania.com



남전선님의

스님이야기

영각스님 (上)

해가 바뀌었다. 절 집에서는 묵은 해나 새해나 분별(分別)하지 말고 하고 한다. 그러나 아직 나 같이 덜 익은 중생들에게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연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올해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보려고 했다. 또 새해에 하는 일 중에 빼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평소애 연막이 뜬적이나 소름돋던 지인(知人)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매년 유난히 생각이 나는 도반(道伴)들이 있다.

출가 수행자에게 도반은 평생의 친구이자 좋은 의지처이다. 도반은 ‘도를 닦는 동반자’라는 뜻도 있는 말이다. 영각 스님과 나는 해제 월이던 골담 함께 지냈고, 대개 섯반 수좌들은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동료 생활은 피하는 편이지만 우리는 죽이 잘 맞아서인지 연상이 높아지는 경우도 없이 잘 지냈다. 또 우리 절 신도들은 영각스님을 무척 좋아한다. 스님은 친한법과 손수행으로 여러 스님을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다.

몇년 전에 스님의 일면을 느낄 수 있는 제맛은 이미 있었다. 영각 스님과 나는 차(차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좋아한다. 특히 커피도 잘 마셨는데, 해무는 스님이 커피차를 만들어 주셨었다. 그 때만 해도 절에서나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여러 종류의 커피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스턴트 커피나 원두 커피 정도는 있었지만, 커피차도 같은 것은 전문점애 가서나 먹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몇몇 신도들의 기도와 일념(일념)에 스님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인스턴트 커피 약진(약진)에다 프림과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는 티 스프으로 열심히 정밀(정밀) 찌는 것이 아닌가? 하나... 이게 무엇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는데 영각 스님은 이렇게



그림· 문병성

‘커피차도 대접’ 애스던 모습 선행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

속 으면 거품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행에서는 가끔 그렇게 커피차(커피)를 타서 드셨었다. 순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捧掌大笑)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는데, 스님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저에서 거품이 난다고 보통 커피가 커피차(커피)가 될 것 없지만, 그 날의 그 커피는 커피차(커피)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한향을 분명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먼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의로운 수행자들은 서로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즉시 도반이 된다. 나의 차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룻밤 정도 함께 앉아 녹차(綠茶)를 우려고, 밤을 세워 얘기를 나누면 금방 오랜 도반이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좋은 도반이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도반이 많이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행자이다.

내게는 세속의 인연에서 만나 출가자의 길을 함께 가는 비교적 오래된(오랜) 도반이 한 분 있다. 바로 영각 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대학 동기 동창이다. 스님은 나보다 몇 년 앞서 출가한 선배지만 난 언제나 동기로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다. 스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선방 수좌로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고운사에서 3년 결사(結社)를 세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

속 으면 거품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행에서는 가끔 그렇게 커피차(커피)를 타서 드셨었다. 순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捧掌大笑)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는데, 스님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저에서 거품이 난다고 보통 커피가 커피차(커피)가 될 것 없지만, 그 날의 그 커피는 커피차(커피)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한향을 분명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먼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의로운 수행자들은 서로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즉시 도반이 된다. 나의 차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룻밤 정도 함께 앉아 녹차(綠茶)를 우려고, 밤을 세워 얘기를 나누면 금방 오랜 도반이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좋은 도반이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도반이 많이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행자이다.

내게는 세속의 인연에서 만나 출가자의 길을 함께 가는 비교적 오래된(오랜) 도반이 한 분 있다. 바로 영각 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대학 동기 동창이다. 스님은 나보다 몇 년 앞서 출가한 선배지만 난 언제나 동기로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다. 스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선방 수좌로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고운사에서 3년 결사(結社)를 세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

속 으면 거품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행에서는 가끔 그렇게 커피차(커피)를 타서 드셨었다. 순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捧掌大笑)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는데, 스님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저에서 거품이 난다고 보통 커피가 커피차(커피)가 될 것 없지만, 그 날의 그 커피는 커피차(커피)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한향을 분명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먼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의로운 수행자들은 서로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즉시 도반이 된다. 나의 차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룻밤 정도 함께 앉아 녹차(綠茶)를 우려고, 밤을 세워 얘기를 나누면 금방 오랜 도반이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좋은 도반이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도반이 많이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행자이다.

내게는 세속의 인연에서 만나 출가자의 길을 함께 가는 비교적 오래된(오랜) 도반이 한 분 있다. 바로 영각 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대학 동기 동창이다. 스님은 나보다 몇 년 앞서 출가한 선배지만 난 언제나 동기로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다. 스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선방 수좌로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고운사에서 3년 결사(結社)를 세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

속 으면 거품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행에서는 가끔 그렇게 커피차(커피)를 타서 드셨었다. 순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捧掌大笑)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는데, 스님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저에서 거품이 난다고 보통 커피가 커피차(커피)가 될 것 없지만, 그 날의 그 커피는 커피차(커피)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한향을 분명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먼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의로운 수행자들은 서로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즉시 도반이 된다. 나의 차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룻밤 정도 함께 앉아 녹차(綠茶)를 우려고, 밤을 세워 얘기를 나누면 금방 오랜 도반이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좋은 도반이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도반이 많이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행자이다.

내게는 세속의 인연에서 만나 출가자의 길을 함께 가는 비교적 오래된(오랜) 도반이 한 분 있다. 바로 영각 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대학 동기 동창이다. 스님은 나보다 몇 년 앞서 출가한 선배지만 난 언제나 동기로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다. 스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선방 수좌로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고운사에서 3년 결사(結社)를 세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